

신탁 운운하는 윤어게인은 ‘보수’가 아니다



기고

이용석

前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소셜에 직접 생포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작 트럼프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정권 흔들기에 급급한 채 우리나라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이에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듯 연상케하는 메시지를 내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안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은 물론 야권 유력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대강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한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다.

공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니,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정부패 때문에 개입했다며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로 다독이는 중이다. 그들의 놀이터인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선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알고 중국 도망갔다”, “우리도 통치해줘요 트럼프” 등 보수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망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신탁반대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이었다. 각자의 이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독자적 노선 확립을 위해 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겨선 안된다는 대의 속에 한 뜻이 났다.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사태든 우리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사안과 상관없는 극단적 주장만 펼칠 뿐이다. 다른 나라 극우세력은 애국 및 자국 이기주의 명분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K-극우’ 윤어게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우선주의 뿐이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쿠광을 비판하면 테무·알리 등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쿠광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히려 ‘안티코리아’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좋은 이와도 힘을 합쳐야한다”는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님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논해야 하고, 극우 세력과 보수세력을 확실히 구분한 뒤 공론의 장에서 이념을 논의해야 한다.

‘윤어게인’ 극우들에게 이재명 정권이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은 안티민주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절대로 보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않으면 TK(대구·경북) 군소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국민의힘 당직자 입에서 윤어게인들의 패륜적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쌍인 힘의 K-뷰티, 기회와 과제



기자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직전 분기 전망치인 74보다 3p 상승한 77로 집계돼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100)에 못 미쳤다. 관세 충격으로 급락했던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90으로 16p 상승했지만 내수기업의 전망지수는 74에 그쳤다.

고환율과 고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초 체감 경기는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장품’이 반도체와 함께 업황 호조를 기록했다.

화장품은 ‘언제부터 수출 효과 품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K뷰티는 결코 낯설지 않은 산업이다. 과거 1960년대 경공업 수출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중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 뒤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위기 국면마다 산업의 변두리에서 완충 역할을 한 셈이다.

최근 K뷰티의 발전하는 모습은 또 확인하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브랜드 기업은 세계 곳곳으로 입지를 넓혀 ‘K’ 위상을 높이고,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은 국산 기술력으로 ‘K’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은 유통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CJ올리브영 등 단일 허브 체제가 사실상 표준이 되고, 방한 외국인을 사로잡으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어지는 역직구 소비 흐름까지 아우른다.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시화되고

있는 수출 성과 이면에는 내수 부진이라는 그림자도 공존한다. 원팀처럼 보이는 생태계는 효율적이지만 일각에선 성공 공식의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소 및 인디 뷰티 브랜드는 특정 플랫폼과 검증된 인기 코드에 의존하게 되고 K를 대표하는 요소들은 점차 비슷한 얼굴을 띤다. 단기 성과에는 유리하지만 다양성과 실험성이 설 자리는 좁아질 수 있다.

화장품은 위기의 수출 국면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팔리는 공식을 내수 생태계로 이식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열풍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K뷰티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혁신과 경험 축적에서 나온다. 수출 성과 뒤에서 내수를 다시 묻지 않는다면, 오늘의 효율은 내일의 제약이 될 수 있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1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48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있는 법이니 비워라. 72년생 부모님의 말씀은 들려주는 이로움이다. 84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7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49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61년생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73년생 뿌린 대로 걷는다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85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38년생 이익만을 염두에 두면 하던 일도 안 된다. 50년생 우물가에서 송능 찾듯이 서두르지 마라. 62년생 버는 일을수록 고개 숙인다. 74년생 부동산 매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봐라. 86년생 오전 11시부터는 계속 운전 주의를.



39년생 나의 결정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51년생 오후에 차량안전에 주의. 63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75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만한 마음도 정리. 87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40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52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64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해보라. 76년생 이금심도(以琴心操)하듯 취미생활을 해보자. 88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41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53년생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65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궁색하다. 77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89년생 뱀뱀한 태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격자식.



42년생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54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6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78년생 자랑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푸는 것이 인정. 90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43년생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55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67년생 삼재이니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79년생 아침부터 순조로운 하루로 재물의 이익이. 91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44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56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68년생 직장대인관계를 살펴라. 80년생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하니 주변이 꽃동산이다. 92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45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이다. 57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69년생 연인을 만나 외외의 지출이 많다. 81년생 종일 사방에서 운이 열린다. 다시 힘을 내자. 93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재수를 부른다.



46년생 고집부리다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 58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마라. 82년생 인생길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했으니. 94년생 신용으로 사람에게 신망을 얻는다.



47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다. 5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71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83년생 결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95년생 삼재이니 나누는 훈훈한 인심을 이어가자.



김상회의四季

시대의 복

전쟁은 권력자와 다국적 사업가들이 일으키고 목숨을 잃는 것은 보통 민중들이다. 한 꺼풀만 더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영웅은 난세의 산물이고 성군이라 칭해짐은 태평성세 때의 인연이다. 아무리 복 있기를 구하여도 시절이 어려우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의 평안한 일상은 기대할 수 없다.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도 사 년을 지나가고 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의 분쟁은 또 어떠한가? 천리만리 떨어진 곳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폭탄만 바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뿐 그 여파는 피부에 와 닿는다. 고물가와 똥돈해진 국제관계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지구촌 곳곳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닌지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의 지도자가 올바른 상식과 공생의식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폭풍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한다.

태평양 건너편 나비의 날갯짓 효과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받고 고통을 받는 현실이다. 불교에서는 팔난(八難)을 언급하고 있는데, 팔난이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불행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팔난 속에 폭군을 만나는 것도 한 대목이다. 폭군은 전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민의식이 확고해진 시대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파시즘적인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회복해야 할 가치로서 요순(堯舜)시대를 동경했다. 인간의 도리로서 군자의 도가 살아있다고 믿은 삼황오제 시대를 그리워한 것이다. 그 당시 임금 요와 순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의 백성들이 배부르고, 홍수로 손해 입지 않게 물길을 트며 치수로 실생활의 어려움에 진두지휘하며 동고동락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4	9					
						4		
7		2					1	
1		6					8	
	7		4		1			
9				3		5		
4				1		3		
	8							
			5	7	6	4		

8	4							7
			1	6				9
					2			
		7		8				9
	6		5		1		4	
	2			9		8		
			6					
2				1	3			
5							3	1